

조지훈의 한용운 인식방법 비판*

이 선 이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조지훈은 해방 이후 한용운에 대한 인식을 주도적으로 생산한 논자이다. 그는 한용운을 민족시인으로, 그의 시를 저항적 민족시의 한 전형으로 평가함으로써 한용운에 대한 현재적 인식의 시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지훈이 남긴 세 편의 ‘한용운론’을 분석하면서, 한용운에 대한 조지훈의 인식이 어떻게 논리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시인론과 작품론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고, 각각의 인식이 조지훈의 역사인식 및 문학인식과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해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조지훈이 한용운의 생애와 작품을 파악하는 인식의 근저에는 정신사로서의 세계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점, 절대가치로 상정된 민족이 이질적인 차이들을 통합하는 논리였다는 점, 민족정신과 시의 결합이 시인지사론(詩人志士論)과 민족시의 논리로 표출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논리에는 인권과 민족주권의 결합, 민족과 선(禪)의 결합으로 인한 논리적 균열이 내재해 있으며, 시인의 사명에 대한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논리화되지 못한 채 미완인 채로 논의가 끝나버렸음을 밝혔다.

주제어 : 한용운, 만해, 조지훈, 『님의沈黙』, 민족시인, 시인지사론, 휴머니즘, 반정치성

* 이 글은 만해학회(2014년)에서 개최한 만해 서거 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임.

1. 서론

계보학적 사유는 인식의 기원을 추적하지만 기원을 확인하는 데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원이란 언제나 가정적으로 합의될 뿐 확정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계보학적 사유란 과거를 향한다기보다는 지금-이곳의 사유를 문제 삼는 방식이라 하겠다. 그것은 당대의 지배적 인식을 의문시하며 통념화된 사유의 이정표들을 교체하는 일련의 과정이 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를 우리시사에서 민족 시인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고 있는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879~1944)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남북문학사 모두에서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저항적 민족시인으로 손꼽히는 한용운의 경우, 이러한 확고한 문학사적 평가만큼이나 그의 시를 읽어내는 독법에도 ‘저항’과 ‘민족’은 견고한 해석의 잣대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항’과 ‘민족’으로 수렴되는 이 견고한 해석의 근거는 어떤 논리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해석이 그의 시를 읽어내는 데 온당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시인으로서 한용운이 저항적 민족시인으로 호명되면서,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의 시도 일정한 해석의 프레임을 통해 민족시의 계보 안에서 인식되어 왔다. 여기서 일정한 해석의 프레임이란 시집『님의 沈黙』을 유기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며 서로 다른 이질적인 층위들을 통일시키는 전일적(全一的) 관점을 지칭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시집의 중심 시어인 ‘님’에 대한 해석과 시적 지향성은, 연인과 부처(깨달음)와 민족독립으로 범주화되고 이들 범주가 하나로 종합되는 유기적 통일체로 인식되면서 저항적 민족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왔다. 시인으로서 한용운이 독립운동가, 선승, 시인이 혼용일체를 이룬다는 논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의 시에 대한 인식에도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 작동하며 저항적 민족시의 전형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한용운에 대한 시인연구와 시연구는 이질적인 요소나 층위를 전일적(全一的) 시각 하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균열과 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민족’이라는 가치로 봉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조지훈이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지배적 인식의 정당성을 제공한 기원의 자리에

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훈(趙芝薰, 1920~1968)은 해방 이후 한용운을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시인의 반열에 올려놓으며, 그를 근대시사에서 민족시인으로 호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실제로 그는 해방 이후 교과서 발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용운의 시 「복종」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당시 문학계 쪽에서는 주로 종교시인으로 평가되던 한용운에 대한 인식²⁾을 민족시인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전인적 인간상의 한 전범으로 그를 그려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그가 해방 이후 한용운연구에 불씨를 당기며, 한용운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한용운을 연구하도록 독려하였다.³⁾ 이러한 조지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고대문학회’ 학생들은 한용운의 글을 수집 및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용운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노력의 결과로 한용운연구의 총체적인 면모를 드러낸 최초의 연구서인 『한용운연구』⁴⁾가 발간되었다. 이 책에는 조지훈이 제시한 한용운 인식방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용운연구의 범주를 불교, 문학, 독립투쟁으로 나눈 이 책의 체계나 조지훈이 덧붙인 책의 서문만으로도 이 연구서 발간과정에서 그가 한 역할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용운연구』의 저자이자 조지훈의 제자인 인권환의 회고에 따르면, 조지훈은 ‘저자들의 교열 요청을 흔쾌히 수용, 약 1개월에 걸친 정독을 통해 오류를 지적하고 문장을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약 100매의 원고를 삭제하도록 하였다’⁵⁾고 한다. 이처럼 조지훈은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 한용운 문학을

2) 1960년대 이전에 발간된 문학선집, 문학사, 문학교과서 및 문학교재를 분석하여 한용운 시의 정전화 과정을 논의하면서 필자는, 해방 이후 최초의 교과서에 한용운의 시가 수록되게 된 경위와 1950년대까지 한용운에 대한 문학계의 인식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조지훈은 해방 후 교과서 편찬을 위임받은 ‘조선어학회’에 관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록할 시작품 선정에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拙稿, 「1960년대 이전 한용운 시의 정전화 과정」,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0집, 2016, 118-119쪽)

3) 조지훈, 「서문」, 박노준 인권환, 『한용운연구』, 통문관, 1960, 5-7쪽, 참조.

4) 박노준 인권환, 『한용운연구』, 통문관, 1960.

5) 인권환, 「만해학의 전개와 그 전망적 과제」, 『한국문학의 불교적 탐구』, 월인, 2010,

재조명할 학문적 발판을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시인이라는 시각을 생산하며 한용운 인식의 방향성을 제시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지훈이 남긴 세 편의 ‘한용운론(韓龍雲論)’을 중심으로, 한용운을 민족시인으로 인식하고 그의 시를 민족시로 파악하는 논리가 조지훈의 인식체계 안에서 어떻게 논리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인과 작품에 대한 조지훈의 인식을 분리하고, 각각의 인식이 조지훈의 역사인식 및 문학인식과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용운이 민족시인으로, 그의 시가 민족시로 인식되는 논리의 실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며, 민족(民族)과 선(禪)과 시(詩)라는 서로 다른 범주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통합되는가를 살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불교와 민족이 만나는 방식에 대한 모색이면서 보다 본질적으로는 시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민족시인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한용운의 시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지평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도덕적 편견의 기원을 밝히면서 니체가 던진 아포리즘은 오늘날 한용운을 이해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먼 존재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는 결코 ‘인식자’가 아닌 것이다.’⁶⁾ 만해 한용운에 대한 인식의 계보학을 문제 삼는 일은 이러한 니체적 아포리즘에서 출발한다.

II. 순일한 정신과 시인지사론(詩人志士論)의 논리

조지훈은 한용운의 생애와 문학을 집중적으로 다룬 세 편의 글을 남겼다.⁷⁾ 「한용운 선생」(『신천지』9권 10호, 1954), 「한용운론-한국의 민족주의자」

245쪽.

6)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이 사람을 보라』, 김태현 역, 청하, 22쪽.

7) 이 밖에도 자신의 시적 여정을 정리한 「나의 역정(歷程)」(『고대문화』 제1집, 1955. 12), 제자인 박노준 인권환이 집필한 『한용운연구』(통문관, 1960)의 「서문」, 노작 홍사용(露雀 洪思容)을 추모하며 쓴 글인 「人間露雀」(『동아일보』, 1947년 1월 14일자)에서도 한용운의 삶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조』 1권 5호, 1958), 「폭풍·암흑 속의 혁명가-한국의 민족시인 한용운」(『사상계』 통권 155호, 1966)이 그것이다. 이 글들은 발표시기로 볼 때 수년 썩의 간극을 보이지만, 내용이나 표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반복과 중첩을 보이며 하나의 일관된 논지를 담아내고 있다. 세 편의 글에서 조지훈은 신념을 고수해나간 지사적(志士的) 인간상의 전형으로 한용운의 면모를 포착해나갔다. 특히 여기에서 조지훈은 오늘날 한용운 이해의 통념이 된 독립운동가, 선승, 시인의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민족과 불교와 문학이 종합된 전인적 인간으로 그를 그려낸다. 그렇다면 조지훈의 인식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체론이 가능했으며, 조지훈의 논리 속에 내포되어 있는 시인론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지훈이 한용운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 최초로 쓴 글은 「한용운 선생」⁸⁾이다. 이 글은 분량은 소략하지만 한용운에 대한 조지훈의 인식방법이 전반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인물비평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부터 일관되게 조지훈은 한용운을 ‘志操의 높이’를 지녔으며 ‘민족정신의 정절’을 지킨 인물로 평가하며 그를 민족주의자요 지사(志士)로 규정해 나간다.

韓龍雲 先生의 평생의 『임』은 『民族』이었다. 釋迦의 임이 衆生이듯이, 마찌니의 임이 伊太利이듯이, 선생의 임은 衆生이요 또 韓國이기 때문에 韓國의 衆生 곧 우리 民族이 그 임이었다. …(중략)…暴惡한 日帝의 발굽 아래 비틀어진 세상에 國內에서 끝까지 民族精神의 貞操를 지킨 분 속에 진실로 그 매운 향내의 面에서 누가 능히 先生과 어깨를 겨룰 수가 있었을가.⁹⁾

조지훈은 한용운의 생애를 추동한 힘은 ‘민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고 그를 일제강점하에서 ‘민족정신의 정조’를 지킨 민족시인으로 평가한다. 한용운이 3·1운동에 민족대표로서 참여한 후 민족주의자로서 평가된 바는 있지만, 시인으로서 한용운의 입지를 민족시인으로 명명하며 그의 시를 민족문학의 중심에 두는 평가는 조지훈이 개척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50년대

8) 조지훈, 「한용운 선생」, 『신천지』 9권 10호, 1954.

9) 조지훈, 위의 글, 43-44쪽.

까지 문학계의 한용운에 대한 평가는 종교시인의 범주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시를 전문하는 시장(詩匠)은 아니었으되, 든든한 불교적 세계관과 깊은 관조에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한 점 - 인도의 시인 「타고아」에 비할만한 종교시인의 면모”¹⁰⁾가 있다고 본 서정주의 평가는, 이 시기에 문학계의 한용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해방 이후 발간된 최초의 문학사에서 백철은 “이땅의 시인치고는 드물게 명상적이요 철학적인 구원에 대한 시상을 노래한 시인”¹¹⁾이라 한용운을 평가하며 그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시인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조지훈의 이러한 주장은 종교적 시인으로 인식되던 한용운을 민족시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조지훈이 한용운을 민족시인으로 인식해 나간 논리는 어떤 맥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개인사적으로 볼 때, 조지훈은 한국전쟁 와중에 부친이 납북되는 아픔을 겪었고 또한 참전을 통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직접 목격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민족’은 분단극복의 이념태로서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사적 경험이 아니라도 지향해야 할 이념태로서 ‘민족’에 대한 인식은 해방공간과 1950년대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비평사적 의제이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 ‘민족’이라는 이념이 분열을 아우르는 통합적 인식을 견인하고 있었다는 점은 임화와 같은 대표적인 좌익계열 문인의 민족문학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²⁾ 따라서 이런 양상은 비단 조지훈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당시 ‘민족’을 이해하는 방식은 진영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만 ‘민족’을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이념으로 상정한 것은 진영을 떠나 일정하게 공유된 가치였다고 하겠다. 이런 비평사적 맥락으로 볼 때, 민족정신을 강조하며 한용운을 민족시인으로 호명해내는 방식은 자연스러운 시대정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파 민족주의 진영에 선 조지훈의 ‘민족’에 대한 인식은, 다른 논자들의 주장과는 내용상 분명한 차이를 보인 것도

10) 서정주 편, 『현대조선명시선』, 온문사, 1950, 5쪽.

11)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8.

12) 이 시기 임화는 계급성보다는 대중성에 대한 모색을 내세우며 분열보다는 통합에 강조점을 두고 민족문학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켜나가고자 하였다.(김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00, 11-118쪽 참조)

사실이다. 조지훈은 표면적으로는 우파 민족주의계열에 선 논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통의 재인식이나 정치에 예측되지 않은 순수문학으로 ‘민족’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문학의 사회적 비판기능을 더하였다는 점에서 우파 논자들의 주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¹³⁾ 그가 한용운을 민족시인의 전형으로 부각시키는 데에는 이러한 민족문학에 대한 나름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조지훈은 민족시인으로 한용운을 인식해나가는 동시에 그를 유가적 의미를 지닌 ‘지사(志士)’로 포착해나간다. 이러한 인식은 「한용운론-한국의 민족주의자」에서 보다 강조되는데,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선생은 근대 한국이 낳은 고사(高士)였다”로 시작되는 이 글에서 그는 지사로서의 한용운의 면모를 앞서우며 ‘혁명가와 선사와 시인의 일체화’로 한용운의 삶과 문학을 특징짓는다.

혁명가(革命家)와 선승(禪僧)과 시인의 일체화-이것이 한용운 선생의 진면목이요, 선생이 지닌 바 이 세 가지 성격은 마치 정삼각형과 같아서 어느 것이나 다 다른 양자(兩者)를 저변(底邊)으로 한 정점을 이루었으니, 그것들은 각기 독립한 면에서도 후세의 전범(典範)이 되었던 것이다.…(중략)…무위한 채로 민족정기의 지표가 되고 강개하면서도 방광(放曠)에 떨어지지 않고 정신의 기둥이 될 수 있었다는 이 하나만으로 선생은 지사(志士)의 평생행약(平生行躍)에 일말의 의아(疑訝)를 허(許)하지 않고 초발심(初發心)의 정과(正果)를 증득(證得)한 것이다.¹⁴⁾

이처럼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로 한용운을 인식하는 방식은 조지훈이 일관되게 견지한 관점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체화의 논리는 어떤 논리적 근거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지훈의 사유의 틀 안에서 어떤 논리화의 과정을 통해 한용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13) 이런 점에서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사회적 비판의식을 가진 조지훈을 한국의 보수주의자 가운데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보는 김윤태의 평가는 음미해 볼만하다. (김윤태, 「한국의 보수주의자 조지훈」, 『역사비평』 57호, 2001 참조)

14) 조지훈, 「한용운론-한국의 민족주의자」, 『사조』 1권 5호, 1958.

정립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지훈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한국문화사를 사상사와 예술사를 통해 정립하려는 학문적 의욕을 가지고 있었으며¹⁵⁾, 이를 구체화한 한국문화사연구를 통해 한국적 미의시의 계보화와 한국적 사유의 계보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고유한 미의식으로 ‘멋’을 호명해내면서 한국적 미의식을 체계화하는 한편, 한국적 사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민족정신의 계보화를 시도하였다.¹⁶⁾ 이 과정에서 그는 한국적 사유의 특징을 휴머니즘에서 찾고 휴머니즘¹⁷⁾의 형성과 전개과정으로 한국사상사를 설명해낸다. 물론 이러한 조지훈의 논의는 해방 이후 우파 문인을 대표하는 김동리의 휴머니즘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김동리는 「순수문학의 진의」에서 ‘민족문학은 민족단위의 휴머니즘’¹⁸⁾이라고 전제하고 민족정신을 앞세운 민족문학론을 전개한 바 있다. 조지훈의 휴머니즘론도 민족과 순수와 휴머니즘을 등가화 하는 방식으로 초계급적, 탈이념적 문학론을 내세운 김동리의 민족문학론의 자장 안에서 전개되었다.¹⁹⁾ 하지만 조지훈은 역사적인 저항성을 휴머니즘론 안에 담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지사(志士)와 지조(志操)의 문제가 휴머니즘을 구현하는 실천론으로 배치된 것은 이러한 차이의 서사를 드러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지훈은 휴머니즘이 가장 찬란하게 꽃피는 극적인 순간을 ‘의(義)에 대한 신념, 불의에 대한 반항으로서의 지조와 순절(殉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대표하는 인물로 정몽주, 신채호, 한용운을 제시한다.

15) 1964년에 발간된 『한국문화사서설-전집7』의 서문에서 조지훈은, 정신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사를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을 일제말기부터 지속적으로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16) 이에 대해서는 줄고 「조지훈의 민족문화 인식방법과 그 내용」(『한국시학연구』 제23호, 한국시학회, 2008)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 있다.

17) 한국비평사에서 휴머니즘 논의의 출발에 대해서는 김영민이 「괴시즘에 대한 저항과 휴머니즘 이론 논쟁」(『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1999, 453-502쪽)에서 상술하고 있다.

18)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6년 9월 15일자.

19) 이들의 휴머니즘론은 1930년대 중반 서구에서 휴머니즘이 제기될 당시의 괴시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탈각된 상태였고, 전후의 탈이념적 성격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면서 인간 보편의 문제를 담아내고자 하는 피상적인 관념론으로 흘렀다고 할 수 있다.

조지훈은 이들을 ‘절의적 인간상’으로 명명하며 민족정신사의 중심부에 이들을 놓고 정신의 계보화를 시도한다. 그가 「지조론」에서 정의한 “지조(志操)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²⁰⁾라는 인식은, 기실 조지훈이 한용운에 대한 최초의 논평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한용운의 삶에 투사해낸 인식이었다.

그렇다면 조지훈이 한국정신사의 중심에 세우고자 한 지사적 삶에서 지사가 지켜야 할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환언하면 조지훈이 지사가 끝끝내 지키려 한 것이 ‘순일한 정신’이라고 했을 때, 순일한 정신이 담고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가능해진다. 조지훈은 한국정신사를 다룬 글에서 ‘한국의 휴머니즘은 먼저 인권과 민족적 주권과 문화적 주체 옹호를 합일한 기본적 휴머니즘을 기조로’²¹⁾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인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개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대한 권리라면 민족주권은 국민국가의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 둘은 개인과 국가의 문제로서 인권과 주권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해진 문화적 주체성은 다분히 민족주권과 결합되는 민족주의적 차원을 의미한다면 결국 인권과 민족주권의 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가 문제로 남겨진다. 인류 보편의 문제인 인권의 문제와 민족주권이 합일되는 문제는 매끄럽게 봉합될 수 없는 논리적 균열을 갖고 있다. 이 둘이 반드시 상충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언제나 합치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둘이 균열 없이 합치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외세에 의해 인권과 민족주권이 유린될 때가 이 둘의 행복한 합치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지훈은 민족주권이 위기에 처하거나 이를 강탈하는 현실에 대해 저해해온 ‘대이민족 투쟁사(對異民族 鬪爭史)’를 ‘민족의식 발달사(民族意識 發達史)’와 등치시킴으로써²²⁾ 인권이 민족주권과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민족운동사로 우리의 역사를 파악한

20) 조지훈, 「지조론」, 『지조론-전집 5』, 나남출판, 1996, 93쪽.

21) 조지훈, 「한국 정신사의 문제」, 『한국문화사서설-전집 7』, 나남출판, 1996, 246쪽.

22)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전집 6』, 나남출판, 1996.

다. 즉 그는 보편적 인권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 유린되는 상황에서 외세에 항거하며 투쟁을 벌여온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한국사의 중심에 놓고자 한 것이다.²³⁾ 따라서 그가 한국적 휴머니즘의 내용으로 파악한 순일한 정신은, 민족주권을 우위에 두고 보편적 인권을 여기에 결합시켜나간 논리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조지훈에게 민족주권의 상실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현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저항정신이야말로 바로 ‘순일한 정신’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신의 역사에서 역사적 주체는 인식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는 완결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므로 일체화의 논리는 정신사로 역사를 파악할 때 갖게 되는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조지훈의 정신사로서의 역사인식이라는 시각 안에서 한용운은 ‘혁명가와 선사와 시인의 일체화’를 통해 ‘순일한 정신’을 지키는 ‘지사(志士)’로 포착되어 나간 것이다.

이처럼 정신사의 관점에서 지조를 지키는 지사로 한용운을 이해한 것이 조지훈의 기본적인 한용운 인식이었다면,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은 어떻게 지사와 연결될 수 있었을까하는 질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물음으로 남는다. 즉 일체화가 세계인식의 방법이 낳은 결과였다면 이를 한용운에게 적용할 때, 이러한 일체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에게 ‘순일한 정신’이 발견되어야 한다. 자기 신념을 지키는 인간을 지사로 보았다면 그가 지키려 한 신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하고, 조지훈의 한국사상사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민족애라는 신념에 가장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볼 때, 그가 주장한 ‘진실로 시인은 지사여야 한다.’²⁴⁾는 시인지사론(詩人志士論)은 민족을 주어로 하는 술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3) 강만길은 『한국민족운동사』를 평가하는 글에서 조지훈이 일체감정기 민족운동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대외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하고 민족운동사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이와 동시에 공화주의운동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강만길, 「지훈과 <한국민족운동사>」, 『조지훈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8, 350쪽 참조)

24) 조지훈, 「폭풍 암흑 속의 혁명가-한국의 민족시인 한용운」, 『사상계』 통권 155호, 1966, 329쪽.

그의 혁명가적 종교가적 또는 예술가적 생명의 一元相의 구현은 詩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의 생애의 면목은 志節詩人이란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되었으며 이 志節詩人으로서의 바탕은 다름 아닌 그의 혁명가적 정신과 經歷, 禪僧의 기질과 수련의 소치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조지훈은 한용운이 지닌 혁명가적, 종교가적, 예술가적 특징이 일체화되어 나타나는 '一元相의 구현'이 '시'라고 보고 있다. 불의의 현실에 저항하는 혁명가적 열정과 초월적 세계에 대한 종교적 열망이 예술적 형상화로 표출된 것이 한용운의 시라고 평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용운에 대한 평가도 지사와 시인의 결합으로 귀결된다. 조지훈의 논리 안에서 '순일한 정신'은 민족정신을 지키는 것이었으므로, 시와 정신을 결합시키고자 한 조지훈에게 한용운은 마침내 '지절시인(志節詩人)'으로 호명된다. 여기서 '지절'은 민족애의 다른 기표라 할 수 있는데, 민족지사로서 한용운은 지조와 시의 결합을 통해 정신사의 계보에서 문학사적 계보로 이동된다. '지절시인'은 이러한 인식의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합에는 혁명가적 정신과 선승적 기질이 바탕이 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지절시인'이라는 기표에서 선승의 이미지를 찾지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혁명가와 선승의 결합에는 인권과 민족주권의 결합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비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겠다. 민족에 대한 사랑과 시의 결합이 가능하고 선적인 경향과 시의 결합 또한 가능하지만, '민족'과 '선(禪)'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절시인론'으로는 봉합되지 않는 지점이다. 실제로 호국불교²⁶⁾라는 말이 불교철학의 입장에서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조지훈이 '민족'과 '선'을 이처럼 쉽게 결합시키는 방식은 민족을 우위에 둔 일방적인 위계화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와 '시인이 곧 지사'여야 한다는 '시인지사론'은 예술의 문제, 좁혀서 말하면 시에 대한 인식으로 고스란히 이월되면서 다

25) 조지훈, 위의 글, 327-328쪽.

26) 심재관에 따르면 호국불교라는 개념은 최남선이 원효사상에 주목하여 한국불교의 특징을 통불교(通佛敎)로 보았고 이러한 원효인식이 불교사학자인 조명기로 이어져 총화불교(總和佛敎)로 변형되면서 불의의 현실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하고 무비판적 회통을 강조함에 따라 호국불교로 변질되었다고 한다. 『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 책세상, 2001, 83쪽 참조)

른 방식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III. 민족시의 논리와 시인의 사명

조지훈은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로 한용운의 생애를 포착하고자 했고 시인지사론을 통해 이를 문학적으로 옮겨놓았다면, 한용운의 시세계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논리화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한용운에 대한 인물비평의 대전제로 “한용운 선생의 평생의 「임」은 「민족」이었다.”는 명제를 제시했고, 이러한 전제에 따라 이질적 범주들이 종합되었다면, 이와 동일하게 한용운의 시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러한 전제가 적용된다.

지사로서 선생의 강직한 기개, 고고한 절조(節操)는 불교의 은축(蘊蓄)과 문학작품으로써 빛과 향기를 더했고, 선교쌍수(禪敎雙修)의 종장(宗匠)으로서의 생애의 증득(證得)은 민족운동과 서정시으로써 표현되었으며, 선생의 문학을 일관하는 정신이 또한 민족과 불(佛)을 일체화한 ‘님’에의 가없는 사모였기 때문이다.²⁷⁾

조지훈에게 ‘님’은 한용운의 문학정신이 표출된 핵심적인 시어로 인식된다. 정신사로서 한국사를 파악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지훈이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준거에는 문학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즉 그에게 시와 시인은 비분리의 상태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비분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시와 시인 모두를 정신의 작용으로 파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민족시인인 한용운의 시는 민족시의 전형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조지훈의 문학관과 논리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갖는 것일까?

조지훈은 한국문화에 관한 많은 저술과 함께 문학과 관련한 적지 않은 글들을 남겼다.²⁸⁾ 그는 한국문화사연구에 있어서 정신사를 강조했던 것처럼 문

27) 조지훈, 「한용운론-한국의 민족주의자」, 『사조』 1권 5호, 1958, 84쪽.

28) 조지훈의 문학관을 살필 수 있는 시론과 문학론은 『시의 원리-전집 2』와 『문학론-전집 3』에 수록된 다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에 있어서도 문학정신을 강조한다. ‘문학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조지훈은 문학의 본질을 아는 문제가 문학정신과 관련된다고 전제하고, 그것은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예술이 예술 이외의 것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문학은 오직 문학적 가치판단에 의거할 것이요, 문학 이외의 여하(如何)한 가치판단에도 복종할 수 없다”²⁹⁾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 그의 이러한 문학에 대한 입장은 고전주의와 유희주의를 아우르며 예술의 공리성이 아닌 예술 자체의 존재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조지훈의 문학관에 의하면 민족을 위한 시나 종교를 위한 시로 한용운의 시를 파악해서는 안 되며, 시 자체를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실체로 상정하고 이를 파악해야 문학에 대한 그의 인식과 한용운의 시를 파악하는 방식이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조지훈이 문학을 인식하는 또 다른 논리에는 문학은 곧 민족 문학이라는 전제가 놓여있다. 그는 한국 근대문학의 이념을 ‘민중의식·평민의식’과 ‘민족의식·독립의식’으로 보고 이를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민족문학의 전통으로 우리의 근대문학사를 인식해 나간다. 조지훈이 한국문화를 파악하는 방법이 정신사에 입각한 민족문화 인식이었다면 한국문학을 파악하는 방식 또한 민족정신을 중심에 둔 민족문학이라는 인식이었다.³⁰⁾ 이처럼 한편으로는 문학의 독자성 내지는 자율성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문학을 민족문학으로 파악하는 두 개의 당위가 충돌하는 지점에 그의 민족시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문학의 개성을 옹호하는 한편, 역사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자각한 시로서 민족시를 한국시의 본도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29) 조지훈, 「문학의 근본과제」, 『문학론-전집 3』, 나남출판, 1996, 20쪽.

30) 이러한 입장에서 조지훈은 체계적으로 「한국현대시문학사」를 기술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논의는 개화기까지만 진행된 채 미완의 상태로 연재가 끝나버렸다. 다만 그가 인식한 민족문화와 그 하위범주로서 민족시의 흐름에 한용운을 중심에 두었음을 「한국의 시는 이렇게 자라 왔다」라는 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조지훈은 우리시의 형성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글의 말미에 시 「나룻배와 행인」을 소개한다. 그는 최남선 이래 시도된 새로운 근대시의 추구는 1920년대 시단에 이르러 여러 권의 시집 발간으로 표출되었으나 예술적 완성도를 보인 경우는 드물었는데 그 예외적 경우가 한용운의 시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학론-전집 3』, 나남출판, 1996, 152-153쪽)

이러한 인식은 순수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순수시의 운동은 곧 시의 본질적 계몽운동인 동시에 그의 발전이 그대로 민족시의 수립이기 때문이다. 시(詩)가 시로서 가진바 그 본질의 가치와 사명을 몰각하고 시의 일부인자(一部因子)요, 오히려 그 부수성인 공리성을 추출 확대함으로써 시의 전체를 삼고 자신의 문학적 창조와 개성의 무력(無力)을 엄폐(掩蔽)하고 정치에의 예속, 정당과의 야합의 당위를 부르짖는 수다한 시인은 기실 시인이 아니므로…(중략)…본질적으로 순수한 시인만이 개성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간성의 해방을 전취(戰取)하는 혁명시인이며, 진실한 민족시인만이 운명과 역사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자각하고 정치적 해방을 절규하는 애국시인일 수 있는 것이다.³¹⁾

조지훈에게 순수시란 용어는 정치적 예속으로부터 시의 영역을 분리시켜 예술(시)의 고유한 입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때 순수시의 개념은 개성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간성의 해방을 전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시와 등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에 포박된 인식이기도 하였다. 순수시의 논리가 탈정치의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정치적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예술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순수 개념 안에는 이미 민족정신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시는 곧 민족시여야 한다는 당위가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가 언급한 “순수한 민족정신과 순수한 시정신(詩精神)의 합일”이 시인의 지상명제³²⁾라는 관점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조지훈의 민족시 인식은, 해방을 맞이하여 예술이 곧 정치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 계급문학 진영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조형된 논리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순수라는 탈이념적, 탈사회적 아성에 함몰되지 않고 현실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논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순수시 주장과는 다른 지점에 놓인다고 하겠다. 하지만 조지훈에게 민족정신은 절대적 가치로 상정된 것이어서, 비록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이는 다시 민족

31) 조지훈, 「순수시의 지향 : 민족시를 위하여」, 『문학론-전집 3』, 나남출판, 1996, 226-227쪽.

32) 조지훈, 「민족시의 밤 개회사」, 『문학론-전집 3』, 나남출판, 1996, 238쪽.

정신의 자각과 표출이라는 논리 안으로 포섭되는 형국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족시의 논리가 한용운의 시에 적용될 경우는 어떠할까.

선생의 문학은 주로 비분강개와 기다리고 하소연하는 것과 자연관조(觀照)의 세 가지에 나눌 수 있는데, 비분강개는 지조에서, 자연관조는 선(禪)에서 온 것이라 한다면, 그 두 면을 조화시켜 놓은 사랑과 하소연의 정서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성취했던 것이다.³³⁾

조지훈은 한용운의 시세계가 비분강개와 자연관조와 사랑과 하소연의 정서이라는 세 개의 층위로 나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조지훈이「시의 세 가지 기본 성격 ; 우아와 비장과 관조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분류하고 있는 미의 종류와 상응하는 면이 있다. 시의 기본적인 성격을 해명하는 조지훈의 설명에 따르면, 한용운의 시에서 비분강개와 연관되는 지조는 민족적 현실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정서화한 비장미를 의미하며, 이에 반해 자연관조는 선가에서 본래자아를 인식하기 위한 정신수련으로서의 관조를 정서화한 것으로서 감정의 절제를 보이는 주지적인 경향의 관조미와 연관된다.³⁴⁾ 그렇다면 한용운의 시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성취했다고 평가하는 ‘사랑과 하소연의 정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것은 그의 미학적 삼분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아미가 되겠지만, 실제로 조지훈은 우아미를 ‘동양적 정신미의 한 최고 경지’라고 파악하면서, 상반되는 것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로 이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사랑과 하소연의 정서’와는 다른 차원의 정서라 보고 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우아는 비장과 관조와 다른 미적 특징을 지칭하는 개념이지 이 둘을 결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용운 시가 함유한 최고의 경지는 온전히 해명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의 물음으로 남는다. 이런 점에서 조지훈이 인식한 한용운 시의 정서는 미학적 해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인

33) 조지훈, 「한용운론-한국의 민족주의자」, 『사조』 1권 5호, 1958, 84쪽.

34) 이러한 세 가지 정서는 조지훈이 「시의 세 가지 기본 성격 ; 우아와 비장과 관조에 대하여」에서 논의한 우아미, 비장미, 관조미와 관련하여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지훈은 이 글에서 관조미란 지적인 것으로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시의 원리-전집 2』, 나남출판, 1996, 86-10쪽 참조)

식과 예술적 형상화의 문제를 결합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비분강개’의 정서와 ‘자연관조’의 결합은, 암울한 민족현실에 대한 분노와 시적인 직관을 통한 예술적 형상화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순수시의 논리화에서 보여준 민족정신과 시정신의 결합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결국 한용운의 시세계가 성취한 가장 높은 경지란 역사적 현실과 예술적 개성을 동시에 포섭해나가고자 한 조지훈의 균형감각이 만들어낸 미적 차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역은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못한 채 논의는 마무리되고 만다. 이러한 논리의 서툰 봉합지점에 ‘시인지사론’과 다른 차원에서 해명되어야 할 시인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놓여있다.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로 한용운을 인식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시인이란 이름을 택’³⁵⁾하겠다는 조지훈에게 시인은 어떤 존재였을까?

시인의 본질은 天罰을 받고 인간에 流謫한 이데아계의 나그네요, 天啓를 듣고 이데아계를 동경하는 人間界의 기수란 말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항상 현실에서 괴로워하고 異端으로 버림받지만 모든 혁명은 詩人이 먼저 心胸으로 예견하고 그 풍조를 불러일으키는 법이요…(중략)…영원한 마음의 안테나에 새 歷史의 소리를 실어 보내는 신념의 地下放送局 아나운서 그것이 시인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의 내면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詩人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시인의 사회참여와 혁명에의 열정을 당치 않는 잠꼬대가 아니면 痴人의 꿈으로 보려하는 一般의 오해야 말로 무지한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詩人만이 혁명을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운동에, 革命에 詩人이 차지하는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것이다.³⁶⁾

여기서 조지훈은 시인의 사명을 현실 속에서 새로운 역사로서 미래를 예견하고 형이상학적 진리를 기억하는 자로 인식한다. 시인은 현실의 어둠을 감지하고 그 변화를 예견하는 일종의 예지자로 그려진다. 조지훈은 현실을 변화시

35) 조지훈, 「폭풍·암흑 속의 혁명가-한국의 민족시인 한용운」, 『사상계』 통권 155호, 1966, 327쪽.

36) 조지훈, 위의 글, 325쪽.

키러는 혁명가나 구도적 열정을 보이는 선승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훨씬 본질적인 이미지를 시인의 사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글에서 조지훈은 이러한 시인의 사명을 한용운에 대한 인식으로 투사하면서 그를 “암흑 속에서 새 역사의 바람에 귀를 세운 사람, 새 역사의 물결에 海圖를 꾸민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이때 혁명가는 당대의 민족적 현실의 직접적 저항을 넘어서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귀 기울이는 자로 확대된다. 이처럼 암흑 속에서 그 자신이 빛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찾아나서는 자로서 시인은, 마치 하이데거가 규정한 ‘모든 예술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의 진리의 도래가 일어나게 함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 시 짓기이다.’³⁷⁾라는 명제와 상응한다고 하겠다. 이때 진리의 도래는 역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조지훈이 말한 ‘사랑과 하소연’이 가장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시와 시인에 대한 이해에 근거할 때 비로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과 불교라는 관념의 세계가 ‘님’과 등가를 이룬다면, 시는 ‘님’에 대한 사랑과 하소연을 담아내는 예술적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예술은 이 지점에서 일체화의 방식을 이탈한다.³⁸⁾ 이러한 인식은 민족시인이자 지절시인으로 호명된 한용운이 민족과 지절을 넘어 ‘역사의 내면의 진실’을 감당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예기하고 있다. 조지훈은 여기에서 한용운에 대한 인식을 멈추고 만다. 그가 진정한 시인을 민족지사로 한정하고, 진정한 시를 민족시로만 규정하는 한, 이러한 시인의 사명은 더 이상 그 축수를 뺄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지훈의 한용운 인식에 녹아 있는 이러한 미완의 인식은 민족시인의 전형이자 민족시의 전형으로만 이해되는 한용운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새롭게 발굴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인론으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긴 채 조지훈은 길지 않은

37) 마르틴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숲길』, 신상희 역, 나남, 2008, 104쪽.

38) 조지훈은 “예술에 나타난 사상이란 대개가 어떤 주의(主義)를 표방함을 가리킨 적이 많았으나 시에서의 사상이란 이런 좁은 곳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기미(機微)를 건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작은 서경시(敍景詩)에서도 능히 사상성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시의 사상성은 어떤 주의(主義)의 편당성(便黨性)에보다도 전인간적(全人間的) 공감성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예술이란 인류의 보편적 공감대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보았다. 『문학론·전집 3』, 나남출판, 1996, 223쪽)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다. 후학들이 한용운의 이름 앞에 민족시인이라는 관형어를 덧씌울 때 조지훈이 시인의 사명에 투영해 둔 원대한 물음은 망각되고 말았다. 실제로 조지훈 자신도 시인의 사명을 현실역사의 부름 앞에서 실천하는 지성으로 한정지을 수 없다는 자각을 명징한 논리로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그의 민족시인이라는 논리 안에는 실천적 지성의 면모와 더불어 형이상학적 존재부름을 통한 역사의 예기가 희미하게나마 새겨져 있다는 점은 새롭게 환기해 볼 점이다.

하이데거의 논리 속에 숨은 정치성을 새롭게 읽어내고자 한 프레드 달마이어의 논의는 이러한 조지훈의 보론(補論)으로 남는다. 1933년 4월에서 1934년 2월까지 대학 총장으로서 나치즘에 협력했다는 사실로 생애의 가장 큰 오점을 안게 된 하이데거는 1934년의 강의에서 훔덜린의 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프레드 달마이어는 이 강의에 주목하며 하이데거가 훔덜린에 대한 자신의 몰두를 정치로부터의 단순한 은둔으로 기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치적 경로에 대한 과감한 변화의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반정치(counter-politics)로 묘사’한 점에 주목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강의에서 하이데거는 훔덜린 시의 기본 주제는 ‘신들의 도피로 인한 신성한 슬픔의 주제’였음을 강조하며, 신들이 철회된 세계에서 신을 기억하는 방식으로서 슬픔의 정조가 갖는 정치성을 확인하였다.³⁹⁾ 시집 『님의 沈黙』이 갖는 정치성은 이런 맥락에서 반정치의 정치성으로 다시 읽혀져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민족시인이 독립운동가라는 생애사에 의거한다면 그의 시가 가진 근원적인 물음, 보다 정치적인 물음을 망각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조지훈의 한용운 인식의 한계이자 가능성은 이 지점에 놓여있다. 따라서 조지훈이 주장한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는 한용운의 시가 어떻게 ‘새 歷史의 소리’를 감지하고 있는가라는 좀 더 깊은 존재론적 물음과 연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9) 프레드 달마이어, 「하이데거, 훔덜린, 그리고 정치학」, 『다른 하이데거』, 신충식 역, 문학과학지성사, 2011, 225-250쪽, 참조.

IV. 맺음말 : 다른 ‘님’을 찾아서

해방 이후 한용운에 대한 인식을 생산하고 견인하는 데 맨 앞자리에 선 논자는 조지훈이었다. 그는 시인지사론을 주장하며 민족시인과 민족시의 한 전형으로 한용운의 삶과 문학을 평가해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방법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내재해 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시와 시인의 삶을 일치시키는 시와 시인의 비분리 문제가 그것이다. 시와 시인의 분리와 비분리 문제는 문학작품 특히 시작품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해묵은 논쟁의 하나이다.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합리성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시와 시인의 삶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작품을 평가하는 평자의 입장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일치라는 방식으로 획일화될 때에는, 일치 혹은 합일을 강제하는 힘들의 위계화에서 배제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유기적인 시각을 통해 한용운이라는 인물을 전일적으로 포착해 나간 조지훈의 논리에는 민족적인 것을 절대가치로 삼는 민족주의적 시각이 하나의 전제로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해 예술이 추구해야 할 보다 보편적 가치는 민족이라는 가치 안에 봉인되고 말았다. 이러한 조지훈의 인식은 시인 김수영이 시 「김일성만세」에서 그를 비판한 지점과 맞닿아 있다. ‘김일성만세/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인정하는 데 있는데//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시인이 우겨대니//나는 잠이 올 수밖에’⁴⁰⁾라는 김수영의 탄식에는, 견고한 반공주의의 지형 안에서 체제 내적으로 민족을 논리화 해나간 조지훈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워져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렇게 민족을 절대적인 가치화로 삼는 조지훈의 인식이 갖는 또 다른 문제는, 공존가능성이 확연하게 해명될 수 없는 두 범주가 아무런 모순 없이 합일됨으로써 작품이 함축하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목소리를 봉인해 버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용운의 생애와 문학을 관류하는 민족 독립의 열망과 불교의 구도적 갈망은 하나의 지향점

40) 2008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게재되었으며 1960년 10월 6일에 퇴고한 김수영의 미발표 유고작이다.

으로 합치될 수 있는 범주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공(空)과 무상(無常)에 천착하며 영원불변하는 실체를 부정하는 불교의 논리는 민족을 실체화하고 이를 이념화하는 민족주의의 자장을 넘어서는(혹은 다른 범주의) 사유지평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와 민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질문으로 남는다. 결국 한용운을 선승이자 독립운동가로 평가할 때, 이 둘은 어떻게 합치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그의 시세계에 대한 다른 이해 방식으로 인식을 전환할 때 비로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용운은 생전에 자유시의 형식으로 쓴 단 한편의 시집인 『님의 沈黙』을 발간하였고, 이 시집의 서문에 해당하는 「군말」은 시집의 창작동기를 밝혀줄 안내자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이 서문은 “ ‘님’만 님이 아니라 괴룬 것은 다 님”이라는 진술로 시작되며 “나는 해 저문 별판에서 도러가는 길을 일코 해매는 어린 羊이 괴루어서 이 詩를 쓴다.”라는 진술로 끝을 맺는다. 한용운은 여기에서 핵심시어인 ‘님’을 개방적인 의미로 규정하면서 목자(牧者)의 심정으로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 이 시집을 창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기독교적 비유로 된 이 서문에 따르면 시인은 일종의 성직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자기인식으로 볼 때, 시집 『님의 沈黙』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와 세속적이고 비루한 인간을 잇는 복음과 기도의 언어들로 채워진 시집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님’에 대한 인식이 텍스트 자체에서 충분히 발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용운을 민족시인으로 호명하며 시인은 곧 지사여야 한다는 조지훈의 인식 안에서는 새로운 ‘님’을 찾아 나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민족’과 ‘선’과 ‘시’의 일체화로 한용운을 인식하는 방식에는 그 속에 논리적 위계화가 반복됨으로써 한용운의 삶과 문학을 보다 열린 지평에서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노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조지훈이 제시한 일체화의 프리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각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님’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시인은 지사여야 하고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라는 인식에 대한 비판적 거리갓기가 필요한 것은, 한용운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이 이 비판적 인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6년 9월 15일자.
-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1999.
- _____,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00.
- 김윤태, 「한국의 보수주의자 조지훈」, 『역사비평』 57호, 2001.
- 김종길 외, 『조지훈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8.
- 박노준·인권환, 『한용운연구』, 통문관, 1960.
-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8.
- 서정주 편, 『현대조선명시선』, 온문사, 1950.
- 심재관, 『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 책세상, 2001.
- 이선이, 「조지훈의 민족문화 인식방법과 그 내용」, 『한국시학연구』 제23호, 2008.
- _____, 「1960년대 이전 한용운 시의 정전화 과정」,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0집, 2016.
- 인권환, 『한국문학의 불교적 탐구』, 월인, 2010.
- 조지훈, 『조지훈 전집』, 나남출판, 1996.
- _____, 「한용운론-한국의 민족주의자」, 『思潮』 1권 5호, 1958.
- _____, 「폭풍·암흑 속의 혁명가 : 한국의 민족시인 한용운」, 『思想界』 통권 155호, 1966.
- 주요한, 「愛의 祈禱, 祈禱의 愛 : 韓龍雲氏 近作 ‘님의 沈黙’ 讀後感(下)」, 『동아일보』, 1926년 6월 26일자.
- 마르틴 하이데거, 『숲길』, 신상희 역, 나남, 2008.
- 프레드 달마이어, 『다른 하이데거』, 신충식 역, 문학과지성사, 2011.
-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이 사람을 보라』, 김태현 역, 청하, 1982.

❖ ABSTRACT

Criticism on Cho Ji-hoon's Recognition of Han Yong-un

Lee, Sun-yi

Cho Ji-hoon was a leading figure on the discussion of recognition on Han Yong-un, particularly the post-liberation perio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he addressed Han Yong-un as the representative of national poet, and evaluated Han's poems as the models of rebellious nationalistic poetry. Such evaluation by Cho set the precedent of basic perspectives and methodologies on how to recognize Han Yong-un in the present day. This paper analyzes three studies on Han Yong-un, conducted by Cho ji-hoon. We also examine how Cho created his logic of recognizing Han as a national poet, and his poems as nationalistic poetry. Accordingly, this paper has separated recognitions on poet studies and work studies, and further explored how each recognition has consistency with Cho ji-hoon's historical and literary percept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has been concluded: the basis of Cho ji-hoon's recognition on the life and works of Han Yong-un was premised on Cho's understanding of the world from a standpoint of history of ideas, the concept of nation was regarded as an absolute value that binds disparate ideas together, and the combination of nationalism and poetry has been expressed through the logic of nationalistic poetry and the notion which equalizes the poet to a classical scholar. It was further concluded that such equalizing logic contains some logical contradictions derived from integration between universal rights and national sovereignty, and nation and Buddhis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other possible interpretations on the role of a poet were not fully discussed, but remain bounded. Last but not the least, this paper critically tries to perceive Cho's recognition on Han Yong-un, and accentuates the necessity of new interpretations of Han's poems, apart from those based on nationalism.

Key Words

Han Yong-un, ManHae, Cho Ji-hoon, *The Silence of Love(Nimūui Ch'immuk)*, national poet, the notion which equalizes poet as classical scholar, humanism,

counter-politics

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05일